

오늘의 기사관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환영리셉션

오후 6시 담양호텔

15일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환영리셉션=오후 6시 담양호텔.
11회 환경의 날 기념 건강자전거 달리기 대회=오전 9시30분 장성군청.
6:25 참전 유공자회 결의대회 및 유적지 탐방=오후 10시30분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6·15 6주년 기념 남북공동수업=나주 금성중·광양중·여수 도원초교·광주 무진중에서 실시.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개최식=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월중 금연교육=오후 1시30분 주월중 강당. 주월중 1·2학년 495명을 대상으로 실시.

광주·전남경총 제 796회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센트럴호텔 4층. 송병준(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씨가 강사로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을 주제로 강연.
490회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강사로 '이제 디자인이다! 독일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강연.
웃음 특강=오전 11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정병탁 한국웃음연구원 소장. '입술로 할 수 있는 멋진 일~오하하하! 웃음코드 살리기'를 주제로 강연.
폐전자제품 리사이클 2006 기념식=오후 3시 목포시 목포해양사령부 부두.
제 16회 청소년 열린문화화합마당=오후 4시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제 16회 도민합창경연대회=오전 9시 목포문화체육센터.
제 10회 무드리 국악공연=15일(목)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목요 열린국악 한마당 '황선영 초청 가야금 연주회'=15일(목)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인체 드로잉전=21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6월 환경의 날 기념 '태양에너지 사진전'=22일까지 일곡도서관.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순천 청년작가회 전시회=17일까지 순천 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겔스타인 개인전=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조카·오브제·테이블·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역사속의 오늘

- 양귀비, 세상 떠남 (756)
왕건, 새 나라 고려 세움(918)
견훤, 고려에 투항(932)
영국의 존 왕, 마그나카르타에 서명(1215)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수혈 이루어짐(1667)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열림(1907)
프랑스 대통령이 퐁피두 발림(1969)
버벌, 미국육상대회 남자 100m서 9초90의 세계 신기록 작성(1991)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1994)

뉴스퀴즈

16.2006 독일 월드컵이 지난 9일 오후 6시(한국시각 10일 새벽 1시)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 축포는 독일 왼쪽 수비수인 이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 필리프 람 2 펠레
3 마라도나 4 웨인 루니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이중 잣대를 버려라
결혼 상대를 찾으려는 솔로들에게 이중 잣대가 있다. 나에게만 유리하고 상대에 불리한, 즉 기준이 다른 잣대 말이다. 미혼 남녀들의 결혼을 돕는 일을 하는 결혼정보업체에 있으면서 받는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동방결혼지국인가, 아니면 동방이혼지국인가"라는 것이다. 결혼으로 '닥'을 보려는 정도가 서로 비슷하거나, 어떤 것을 일부 포기하고 어떤 것을 일부 얻는 감성적인 가치가 결혼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개인적 능력이 있는 솔로라면 자기만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무게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최소한 소질이 내 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대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이 직업보다 중산층이라는 경제적인 가정 환경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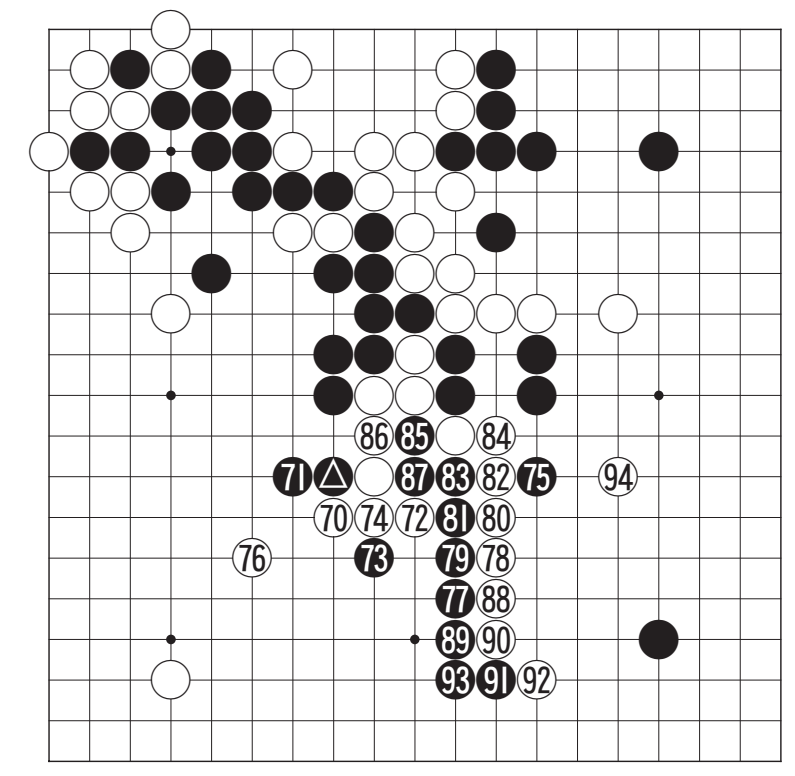
세웠을 경우 상대방의 경제력이 미흡하더라도 엘리트 직장인이란 직업적 매력을 높게 보는 균형 감각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자기 매력에는 확대경을 쓰고 상대의 매력에는 현미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의 흠집을 찾기 위해서 확대경을 들이 대는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나은 편이다. 중매나 중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그런 점이 더러 보인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부동산 소개소에서 자신에게 중개를 의뢰한

듯한 프로필 구석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객의 매력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만 불만 투성이인 경우가 많았고, 담당 고객도 상대방 소개 과정에서 크레임 제기를 많이 했다. 반면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커플매니저들은 이같은 노력이 만남을 주선하고 상대를 맺어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됐으며 고객에게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유도, 미팅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가 이뤄지거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다. 그래서 '고객 분위기와 커플매니저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혼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특히 있어야 한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동일 잣대를 들이대라

고객이 부동산 구입자라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강조하고 부동산을 팔려는 상대방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흠집을 찾는 상술을 발휘하기 일쑤다. 이렇게 되면 곧 불공평한 중개역할이 드러나 부동산 소개소 분야에서도 잘 통하지 않은 방법이 되고 말 것이다. 미혼 남녀를 중개하는 일을 하는 커플매니저나 소개자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본다. 어떤 커플매니저는 고객의 신규 프로필을 받으면 고객의 부족한

대한 프로필 구석을 귀신같이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객의 매력을 찾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만 불만 투성이인 경우가 많았고, 담당 고객도 상대방 소개 과정에서 크레임 제기를 많이 했다. 반면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커플매니저들은 이같은 노력이 만남을 주선하고 상대를 맺어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됐으며 고객에게 상대의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유도, 미팅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가 이뤄지거나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았다. 그래서 '고객 분위기와 커플매니저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결혼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특히 있어야 한다.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제15회 광일초 광주전남작가비트대회
반발 부른 무리수 2회전 제 5보(70~94)
백 김형태 <광주시교육청>
흑 박명수 <서광주농협>
박명수 5단은 초반부터 백을 압박하는 전술을 계속 펴고 있다. 하지만 김형태 5단의 치고 빠지는 작전에 따라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흑 ▲도 압박전술의 연장이다. 백에게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75까지 진행된 뒤 백이 76으로 지켰을 때 상대를 더욱 밀어붙이기 위해 77로 들어간 수가 백의 반발

바둑소식
고근태, SK가스배 3연승
고근태 5단이 14일 스카이다비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0기 SK가스배 신예프로10결전 A조리그에서 김기용 3단계 195수만에 흑 11집 반승을 거뒀다. 고 5단은 이날 승리로 3승을 기록, 백홍석 4단계와 함께 A조 공동 선두에 올랐다. 초반 우상귀에서 우하귀까지 우변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두 기사의 대국은 흑을 권 고근태 5단이 우변 백을 잡으며 유리한 흐름으로 진행, 승부가 갈렸다. 이 대회는 모두 12명의 신예기사들이 A, B 두 개조로 나눠 리그를 벌인 후, 각 조 동순위까지 대국해 최종 1위에서 10위까지 랭킹을 결정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Animal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for the date 6월 15일 (음 5월 20일 乙亥).

굿모닝 잉글리쉬 <668>
God bless you!
잘 지내세요
A: Ahchoo!
B: God bless you!
A: Thank you, I'm still suffering from a bad cold.
B: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so you don't have a relapse.
A: 에취!
B: 저런, 몸조리 잘하세요.
A: 고맙네. 지독한 감기가 아직 떨어지지 않는구먼.
B: 부디 몸조리하세요. 그래야만 재발하지 않지요.
ahchoo, achoo [: tu :] (감탄사) : 에취(재채기 소리).
God bless you!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라 (상대가 재채기했을 때) 조심하세요, 저런, 기없어라(따위).
= Bless you!
relapse : (병의) 재발

오하이오 니혼고 <668>
それは耳が痛(いた)い話(はなし)だ。
그거 찢리는 이야기인데
A: なべの耳をつかまず持ったら、火傷(やけど)しちゃって。それで、おかあさんにそっかしって言われちゃった。
B: なべの耳持たず、火傷じゃ、それは耳が痛(いた)い話だ。
A: つまらないダジャレを言わないでくださいよ。
A: 냄비손잡이를 잡지 않고 들었더니, 화상을 입어버렸어. 그래서 엄마한테 달렁거린다고 한 소리 들었어.
B: 냄비 손잡이를 잡지 않고, 화상이라, 그건 찢리는 이야기인데.
A: 시시한 익살은 부리지 마세요.
火傷(やけど) : 화상
そっかしい : 경솔하다, 달렁달렁하다
ダジャレ : '익살'
つまらない : 하잘 것 없다, 보잘것없다
耳(みみ)が痛(いた)い : 귀가 아프다(남의 말이 자기약점을 찢러서 듣기 거부하다)

니하오 풍구워 <386>
你踢球踢得好好?
축구 잘하세요?
A: 你踢得什么运动?
Ni xitai shenme yundong?
[나 시한 킥어 운동]
B: 我踢足球。
Wo tikitai ziqiu.
[와 시한 무리수]
A: 你踢球踢得好好?
Ni tikitai de hao hao?
[나 킥어 잘하냐]
B: 我踢球踢得好好。
Wo tikitai de hao hao.
[와 킥어 잘하냐]
A: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어: 축구 좋아합니다.
A: 축구 좋아하세요?
B: 좋아요. 당신보다 못합니다.
喜欢 [xǐhuan] 좋아하다. 踢足球 [tikitai ziqiu] 운동
足球 [zúqiú] 축구
踢 [tī] 차다. 踢得好 [tikitai de hao] 잘하다

한자 이야기 <286>
優勝(우승)
넉넉할 우, 이길 승
우(優)는 인(人)+우(憂)로, 나긋나긋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배우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승(勝)은 력(力)+집(朕 : 울리다)으로, 힘을 들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 나아가 '견디다' '이기다'를 의미한다.
우승(優勝)이란 본래 '뛰어나다'란 뜻이지만, 현재는 제1위로 이기는 것을 지칭한다. 또 우승열매(優勝劣敗)란 말도 있다. 그 자체의 성질(性質)과 환경(環境)에서 나온 자가 이기고 모자란 자가 지는 것이다.
시험(試合)에 나갈 때는 누구나 우승을 바라고 나가므로, 승리(勝利)의 기쁨은 한 쪽만이 차지하게 된다. 그렇지만 시험을 승패(勝敗)를 넘어, '만남'에 의미를 두면 어떨까?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토고(TOGO)는 2006 월드컵 예선전(豫選戰)의 첫 번째 상대국(相對國)이었다. 경기(競技)를 보기 전에 국가 이름을 지구본에서 확인하여 보니, 적도 위 대서양 쪽으로 '가나'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였다. 인구는 약 550만 명 정도이고, 생활은 아직도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듯하였다. 아프리카 여행 때는 꼭 찾아가 봐야 하고 다짐해본다.